

#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왜 필요한가?

유경상 (CTC 청소년세계관교육센터 대표)



"예배시간에 아이들이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아요. 휴대폰에 푹 빠져 있거나 친구들과 장난치며 떠들떠하느라 중요한 이야기에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복음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치만 커져갈 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기가 힘드네요."

"시험 기간만 되면 갑자기 예배시간에 빈자리가 많아져요."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멀뚱멀뚱 쳐다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중고등부가 줄어드는데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공부 때문에 신앙 훈련은 뒷전인 부모님들이 많아서 힘이 빠져요."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아니 그보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부모와 교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 기독교 세계관 교육 중에 만난 부모, 교사, 목회자에게서 자주 듣는 말들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진단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점검하고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때 해결될 수 있다.

##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 1. 세계관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관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일종의 전제(presupposition), 틀(frame), 패러다임(paradigm)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세계관은 뿌리로, 행동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고 습관, 성품, 대인관계, 리더십 등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세계관이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청소년의 세계관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세계관이 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논리적·철학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고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시기이다. 한마디로 청소년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가장 시급하면서 적합한 시기이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생각과 삶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진리가 아닌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갈 것이며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21세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면, 그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다.



## 2. 오늘날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오늘날 청소년의 삶에서 키워드를 뽑으라면 ‘공부’와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청소년들이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공부’와 관련해서는 경쟁주의와 출세 지향주의를 들 수 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라고 대답할 뿐 분명한 목적이나 이유를 답하는 경우가 드물다. 분명한 목적도 없이 어려서부터 입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가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게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닌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세계관이 만든 열매로,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뒤쳐질 것 같아 불안해지는 것이다. 온전하지 않은 이 세계관대로 산다고 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 바라보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에 충실하려고 애쓴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입시 사교육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세계관적 측면에서 볼 때 학교 교육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엄밀히 말해서 학교는 ‘사실’(fact)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는 ‘세계관’(worldview)을 가르치는 곳이다. 최근 기독교 홈스쿨링과 기독교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청소년 대부분은 공립학교에 다닌다. 이것은 많은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립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지식들을 가르친다. 즉, 공립학교에서는 ‘세속적 인본주의’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대단히 시급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하는 것은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가기 위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임을 알려 줘야 한다. 또한 교과서를 비롯하여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떤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이다.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역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미디어의 중독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세계관의 영향력은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텔레비전과 영화를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이나 가치와는 거리가 멀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미디어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설세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기가 어렵다. 더구나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는 사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이미지가 청소년들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디어 속 인물들이 그들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오늘날 아이들의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이다.

오늘날 하나님과 진리에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들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것은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욕망을 채우는 것들인 것 같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과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종교의 관점이나 다른 세계관에서 비롯된 가치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기도 하고, 동성애 등에 대해 일반 청소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관점과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절제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미디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디어 문화를 변혁해 가는 사명을 감당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한다.

## 3.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육적인 면에서 학교와 더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다. 하지만 최근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심지어 쇠퇴하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교회학교의 침체이다. 이것은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교회 교육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일날 1시간 남짓하는 예배와 공과공부 위주의 교육으로는 교회 교육의 사명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대중문화의 영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조망하거나 가이드해 주는 교회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신앙이 종교생활을 넘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 안으로 침투한 물질 만능주의, 권위주의, 성공주의, 기복 신앙 등의 잘못된 세계관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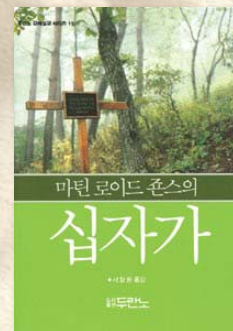
교회와 학교가 후천적인 교육기관이라면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회피할 수 없는 일차적 교육기관이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길 바라신다(신 4:9-10). 인간은 가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 가운데 인격을 훈련받고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특징은 부모들의 삶을 통한 모델적 교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삶은 자녀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녀교육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은 교회에, 그리고 자녀의 공부는 학교나 학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물론 학교와 교회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최종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유경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청소년세계관교육기관인 크리스천싱킹센터(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산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요 역할이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의 세계관을 점검해야 한다. 부모의 신앙이 종교생활에 그쳐, 부부관계, 재정관리, 드라마 보기, 자녀 양육과 같은 일상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델을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셈이 된다. 성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들의 학교교육이나 미디어 생활을 통해 전해지는 세계관을 방치한다면 아이들의 삶은 점점 세속적 인본주의나 상대주의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리해 보면 다음 세대가 처한 현실과 교회와 가정의 교육적 상황은 너무나도 척박하다.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아이들의 현실은 그것을 이미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책임이다. 낸시 피어시의 말처럼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시키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진리가 주는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을 해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판하는 훈련을 통해 사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 두란노

사순절 묵상 도서

## 십자가

신동식 (빛과소금 교회 목사)

교회사를 보면 시대마다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다. 3세기에는 황금의 입이라 불리던 크리소스톰, 16세기에는 루터와 칼빈, 17세기에는 사무엘 러더포드와 존 오웬, 18세기에는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19세기에는 찰스 스펄전이었다. 20세기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마틴 로이드 존스이다. 시대마다 필요한 설교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20세기를 위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보내셨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설교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준 시대의 선지자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죽어서도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부른다.

그의 책은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 아니다. 모두 현장의 육성 설교를 타이핑한 것으로, 그의 설교집은 마치 예배당에서 직접 음성을 듣는 것 같다. 그는 설교를 “불타는 논리”라고 하였다

『십자가』는 ‘죽어서도 설교하는 설교자’의 명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것은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예배당에서 1963년 가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구절을 가지고 총 9번 강해한 것이다. 이러한 설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 그리고 신학적 토대와 인문학적 지식이 풍성해야 가능하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